

## '악천후에도 후번호 식별' <울산대 연구팀>

제5회 지능형 컴퓨팅 국제학술대회서 발표

(울산=연합뉴스) 이상현 기자 = 악천후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울산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.

울산대학교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조강현 교수와 덤 코우식(Kaushik Deb) 박사는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릴 '제5회 지능형 컴퓨팅 국제학술대회(ICIC 2009)'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.

조 교수팀은 연구 주제는 '색과 기하정보를 이용한 향상된 자동차번호판의 인식 방법'으로 차량과 차량 번호판의 색깔이 비슷하거나 악천후로 인해 카메라가 번호판의 번호를 구분할 수 없을 때도 번호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.

이 기법은 또 반사광을 받아 번호판이 하얗게 변했거나, 비스듬하게 왜곡된 번호판도 구별할 수 있다.

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려고 옆 차로로 달리는 양체 운전자나 악천후 때 고속도로 요금소에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.

특히 현재 인식률이 낮아 잦은 말썽을 일으키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출입구의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기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조 교수팀은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5~6개월간 테스트를 거쳐 실용화하기로 했다.

조 교수는 "이 기법은 여러 번 색을 분석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과 번호를 명확히 판독하는 것"이라며 "화면 상 삐뚤어진 번호도 펴 수 있고 강우 등 악천후에 찍힌 화면도 인식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한국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최하고 울산대학교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컴퓨팅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 15개국 200여명의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16일 오후 등록, 17일과 18일 논문 발표, 19일 울산시티투어의 순서로 진행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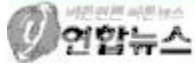
이 대회는 지난 2005년 중국의 허페이(合肥)를 시작으로 2006년 쿤밍(昆明), 2007년 칭다오(靑島), 2008년 상하이(上海) 등에서 개최됐다.

leeyoo@yna.co.kr

(끝)

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

[2009-09-16 16:16 송고]

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재제를 금합니다.  
Copyright (c)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.